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지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會國際部(TEL : 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 1. 미국경제 본격 회복 국면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美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최근까지도 침체 상태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느냐로 의견이 분분했던 미국 경제가 이제는 명백한 성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증거가 산업생산의 증가나 소비자신뢰도 회복에서부터 3.9%에 달했던 지난 3·4분기 성장률에 이르기까지 미국경제 전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경제회복 여부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 국가경제연구소가 조만간 지난 90~91년중의 美 경기침체가 1년여 전에 이미 끝이 났음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명백한 경제회복 조짐은 미국경제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떠맡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경제가 과거 경기사이클에서 볼수 있듯이 일단 성장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상당기간 성장세가 지속돼 왔다는 분석은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에게 더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지난 '60년동안 11차례의 성장기를 경험했는데 이 가운데 최장기의 성장기는 '61년초부터 '69년말까지 약 1백6개월가량 지속된 것이었

으며 11차례 성장기의 평균적인 지속기간도 5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기가 2년 이내에 끝나버린 경우는 지난 '80~81년의 성장기 단한차례였으며 성장주기가 3년 이내에 종료된 것도 두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회복기에 들어선 미국경제가 과거의 경우처럼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 클린턴 정부는 기록적인 재정적자를 크게 감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 미국의 재정정책은 경제성장 규모의 상관관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였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성장은 재정적자 감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규모가 확대되면 소득증가로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동시 실업감소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례로 지난 '82~90년 동안의 경제성장기중 연평균 재정적자 규모가 1천6백억달러에서 1천억달러로 축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 2. 美반도체 업계 설비투자 적극

미국의 대형 반도체메이커들이 세계 반도체 수요 회복을 겨냥,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즈(AMD)가 텍사스주에 7억달러를 투자, 신규공장을 건설키로 한데 이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인텔, 모토롤라 등도 세계각지에 신규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반도체메이커들의 이같은 적극적인 설비

투자계획은 향후 반도체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나오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메이커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AMD社가 오는 '94년 마이크로 프로세서(MPU)생산을 목표로 내년봄 텍사스주 오틴시에 신규공장을 착공기로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설비투자과 연구 개발비로 모두 20억달러를 투자기로 한 인텔社도 이 예산과 별도로 신규공장 건설비를 책정, 공장 부지선정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MPU 생산거점 조성을 위해 1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TI는 내년까지 이탈리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신규공장을 모두 가동기로 했으며 모토롤라도 영국공장의 확장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미국의 반도체메이커들이 소극적 투자 자세에서 적극적인 투자패턴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은 저가퍼스컴의 보급증가로 앞으로 반도체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3. 美 가전제품판매 호조

지난 10월중 美시장에서 TV·VCR컴보가 109%의 판매신장을 기록하는 등 판매증가를 나타냈다.

美전자협회(EIA)는 금년초부터 10월까지 美가전제품시장이 기록적인 판매신장세를 보여왔다고 밝히고 금년은 美가전제품시장이 신기록을 세우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IA는 10월말현재 VCR테크의 대달러 판매가 전년동기비 20.4% 증가했고 올해 다이렉트-뷰 컬러TV 판매는 사상 최고기록을 나타낼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10월중 미시장에서 컬러TV판매는 전년 동월비 22.2% 증가한 227만9844대에 달했고 VCR테크는 48.7% 증가한 17386대에 달했다.

10월중 美가전시장 판매현황(%)

| 구 분       | 판매대수      | 증감율    |
|-----------|-----------|--------|
| 컬러TV총계    | 2,279,844 | +22.2  |
| 다이렉트-뷰    | 2,232,253 | +22.2  |
| TV단독형     | 2,123,743 | +19.6  |
| TV·VCR컴보형 | 108,510   | +109.2 |
| 프로젝션      | 47,641    | +52.9  |
| VCR테크     | 1,497,908 | +48.7  |
| 캠코더       | 327,290   | +70.0  |
| LDP       | 21,910    | +77.8  |

캠코더는 70% 증가한 19만2568대를 기록했고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LDP)는 77.8% 증가한 1만2319대를 기록했다.

### 4. UR협상 조속타결 촉구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가트 우루과이라운드 국제교역협정 체결이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美·EC간 농업교역협정 체결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입장사이에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콜 독일 수상은 25일 하원연설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는 가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선진국이상으로 가트 UR협상의 타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교역협상의 성공적인 종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EC는 UR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주 EC의 오일시드 생산감축과 기타 농업보조금 지급 삭감 등을 포함한 농업교역협정에 합의하고 미국은 이에 따른 대가로 EC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결정을 철회키로 했다. 프랑스는 그러나 美·EC간의 이 같은 협정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 조약 승인을 위한 EC 각료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콜 폭일수상은 또 이날 연설에서 독일경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경제전문지들의 주장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독일의 통일비용 부담을 줄이기위해 즉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민당의 주장을 거부했다.

콜 수상은 사민당 재정전문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에서 사민당이 독일경제 회복에 대한 처방으로 세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침체상태에서는 과중한 세금부담이 오히려 경제에 독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 수상이 독일경제와 관련 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5. 일본기업 해외투자 급제동

일본 주요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산성이 최근 주요기업의 해외투자계획을 수정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도 투자계획은 9600억엔으로 전년도비 약6,000억엔, 38%나 감소하며 '93년도에도 금년도보다 65% 급감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감소는 자동차, 전기기계, 일반기계 등의 대형투자가 일단 마무리된데다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보류, 기업의 실적악화에 따른 리스크회피등을 반영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정계획에 의한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다음과 같다.

-전기기계=상대국과의 산업협력, 해외시장의 안전확보, 무역마찰의 회피, 보급품의 현지생산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으로는 시장근접지역에서의 개발, 생산, 국내의 인력부족 대응, 코스트 경쟁력의 강화, 경제권블록화에의 대응, 재수출기 지로서의 활용가능한 투자를 늘이고 있다.

'92년도에는 투자규모가 2,000억엔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이나 '93년도에는 4분의1로 급감할 전망이다.

-전자기계=무역마찰의 해소, 해외시장개척 차원에서 구미중심으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극심한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등 코스트가 싼 동남아 등 개도국투자에 주력, 그러나 해외생산기지의 건설도 일단락, 최근에는 생산기지의 육성, 생산성제고투자로 변모하고 있다.

### 6. 일본 통신기기업체 대중국 진출 활발

일본의 통신기기업체들은 중국이 통신인프라 확충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승격,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중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신인프라 정비 가속화에 힘입어 교환기, 광통신장치, 마이크로웨이브 등 기간통신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하자 NEC 등 일본의 정상급 통신기기메이커들은 잇따라 현지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금액규모에서는 기간통신시스템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팩시밀리, 무선기, 페이지(포켓벨)등도 꾸준한 수요증가를 보여 대규모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 통신기계공업회 조사에 따르면 금년 일본의 대중통신기기 수출은 전년도보다 2.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같은 대중수출증가는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속에서 사업발전을 꾀하고 있는 일본 통신기기업체에게 획기적인 사업확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통신기기업체는 현재 NTT, NCC 수요부진과 일본국내 통신기기 수요감소, 대규모수출 고전등으로 2자리수의 매출액감소가 불가피하는등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대가 높고 실제 성장률이

현저한 분야가 대중통신기기 수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본 통신기기메이커에 미개척시장으로 강한 매력을 풍기고 있다.

일본 통신기계공업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3억엔(교환기 71억엔, 전송무선기 34억엔, 팩시밀리 24억엔)을 기록했던 대중통신기기 수출실적은 올들어 급속도로 증가, 지난 8월말 현재 이미 196억엔에 도달, 대중시장인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금년 대중수출이 200억엔대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두드러지는 분야는 교환기부문으로 무려 3배 가까운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 수출실적이 갈수록 확대되자 일본 통신기기메이커들은 중국시장에 높은 비중을 두고 시장공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NEC를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통신인프라정비에 대응, 교환기 생산 합작공장을 천재에 설립, 내년 상반기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내년 중에 현지합작회사를 기한시에 설치, 광통신 장치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이와 아울러 합작기업의 현지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 회사의 경우는 특히 포켓벨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는 교환기를 중심으로 기간통신시스템 기기사업에 대중사업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사통은 지난해 남경에 광통신장치 생산공장을 설립한데 이어 올해는 상해와 향촌에 교환기 공장을 설립, 대중통신기기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천에서 소프트개발도 하고 있는 이 회사는 교환기, 광통신 장치, 마이크로 웨이브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현지와의 밀착도를 강화, 지명도를 높여나간다는 대중사업 전략을 구사중이다.

중국이 통신인프라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간 통신기기 수요증가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유선망 미정비로 인한 무선통신기

기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게 일본통신메이커들의 분석이다. 특히 공중전화망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유력통신수단으로 표시장치가 부착된 포켓벨의 수요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송하통신공업이 지난 6월 북경에 월산 1만대규모의 포켓벨합작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대공전기, 국제전기 등도 포켓벨분야에서의 대중사업 참여를 발표했다.

이밖에 일본의 대형 통신기기메이커들이 조남성, 광서성 등지에서 현지메이커들과 기술제휴관계를 체결하고 팩시밀리 생산에 돌입키로 했다.

## 7. 동구, 통신근대화 난항

서방의 통신설비 기업들이 동구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나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 유럽지가 보도했다.

이번주에도 헝가리 의회는 헝가리 전자통신社의 주식 중 30%를 매각, 최소 3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구식 통신망을 완전 제거하고 근대화된 시설로 개체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도 거의 비슷한 작업들을 추진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구권 국가들은 통신근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현재의 기본장비들이 지나치게 일천한데다가 생각지 않던 비용증가, 일의 지연 등까지 겹쳐 서방 국가들의 이지역 설비 근대화 작업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통신장비 공급업체로서는 대형급 기업인 스웨덴의 텔레폰 에릭슨사의 잔 스텐베르그 부사장은 자사뿐만 아니라 동구권에 진출해간 대부분의 통신관련 기업들이 문제는 많고 이익은 작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실토했다.